

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른바 “현학 교육”을 주장했다.

- (1) 학과 중 감각을 초월한 초자연적 과목을 더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우주의 위대함을 알게 하여 물질에 대한 욕망을 감소시키고 심사를 억제하여 舍己爲人를 발달시켜 전체를 위해 노력하는 정신을 발달시켜야 한다.
- (2) 학과 중 예술상의 교훈을 증가시켜야 한다. 향수에 있어서 유유자득하는 즐거움을 가지게 하고 창작에 있어서 인류 정신 생활이 더욱 풍부하게 해야 한다.
- (3) 학과 중 인류 자유의지의 大義를 선양하여 사회개조의 용기를 고취해야 한다.

또 장군매는 자신이 “서양 300년 이래의 문명을 물질문명이라고 명명한 까닭”을 구체적으로 밝힌 다음³⁸⁾ 중국의 정신 문명을 이렇게 설명했다.

중국은 독존적인 종교가 없으므로 서양처럼 사람들을 강제로 자연계 연구로 몰고 가지도 않으며, 농업입국이므로 한푼을 다투는 시정배나 망치를 들고 기계를 운전하는 공인이 그 기술을 배울 바가 없고, 또 쇠국정책을 따르므로 다른 나라의 고철을 빨아들이지도 않는다. 또한 인생관의 경우 중용의 설을 함양하는지라 이른바 기계주의도 없고 목적론적 관점도 없으며 이른바 개인주의나 사회주의도 없다. 이와 같이 동서를 비교하건대 그 가운데는 安心立命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이에 세상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정신문명이라 명명했던 것이다. (109쪽)

장군매는 또 ‘과학의 방법’과 ‘현학의 방법’을 각각 ‘한학(漢學)’과 ‘송학(宋學)’에 대치시켜, 공리는 독서 속에 있다고 보는 한학의 입장과, 독서는 공리의 보조에 불과하거나 심지어 육경이 모두 나의 각주로 보는 송학의 입장 차이는, 마치 서양철학사 가운데 경험주의와 합리주의의 대립에 상응한다고 하

38) 장군매에 따르면, “인생이 물질과 금전을 위해 존재하고, 물질과 금전이 인생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물질 문명은 다음 네 가지에 근거한다. “(1) 사상에서 말하자면, 갈릴레이의 역학상의 발견은 기계주의로써 생물학상, 심리학상의 일체 현상에 적용하고 심지어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해석하려 한다. (2) 학술상으로 많은 유형적 제작이 있고 이른바 발명이 있으면 국가는 전력을 다해 보호해 준다. (3) 증기기관의 발명 후 나라마다 공장과 벽돌 굴뚝을 쌓는 것을 최고의 정책으로 삼고 상품을 이미 제작한 다음 그것을 외국에 실어가고 있으며 온 나라의 생각과 노력을 공업과 상업에 집중시킨다. (4) 식민지 개척과 부의 성취를 국가의 유일한 정책으로 여겨 국외에 투자하는 사람에 대해 국가는 외교와 군사의 힘으로써 후원한다.”

였다.(113-4쪽) 그는, 베이컨·로크·벤담·흠 등을 유물주의자로 분류하여, 한학과 인 왕인지·고염무·대진·완원 등과 대비했고, 칸트·베르그송 등을 유심주의자로 분류하여 송학주의자(즉 공맹 이하 송명리학자)와 대비시키기도 했다.³⁹⁾

마침내 장군매는 “송명리학을 선양해야 할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공자는 말하기를 ‘오직 천하 지성(至誠)의 사람이라야 자기의 성을 다 발휘할 수 있다’ 했고, 또 ‘사심을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克己復禮)’라고 말했다. 맹자는 ‘방심을 구한다(求放心)’ 했고 ‘잡으면 보존되고 버리면 없어진다’ 했다. ‘다 발휘하다(盡)’ ‘이긴다’ ‘구한다’ ‘잡는다’고 한 것들이 모두 같은 의미이다. 심을 실재로 여기는 이와 같은 관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설령 한학파가 백방으로 훼방하더라도 훼손될 수 없는 것이다. … ‘심이 실재이다’는 설은 송명리학자에 의해 크게 창성했는데 진실로 그 공이 우임금에 결코 뒤지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정문장은 아는가? 이처럼 인욕이 횡행하는 이 때 … 이러한 인심 풍속을 어찌 번쇄한 해설로 도피하는 한학파의 업적으로 교정할 수 있겠는가? 어리석은 사람을 깨우칠 수 있는 약을 구하려면 오직 ‘신송학’의 부활만이 그 대안이다. (118쪽)

장군매는 말하기를 “국가 대사의 의론이 분분하고 기강이 허물어지는 이 때를 당하여” 상정할 수 있는 “치란(治亂)의 진리”는 “예절을 안 연후에 의식이 풍족해지고, 영욕을 안 연후에 창고가 가득 찬다”는 것이라고 하였다.(즉 정문장이 내세운 『관자』의 말을 뒤집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송학을 제창하려는 까닭의 뜻깊은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119쪽)고 하였다. 그는 자신의 논점을 이렇게 정리했다.

- (1) 인식은 감각과 개념이 합쳐서 이루어진다.
- (2) 경험계의 인식은 인과율에 따르나, 인생의 변화는 자유의지적이다.
- (3) 과학을 초월한 형이상학을 가지고 과학의 성과를 제어해야 한다.

39)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한학 송학의 쟁론은 서양철학사상 마음이 백지이나 백지가 아니냐의 논쟁이라고 여긴다. 백지로 여겼기 때문에 경험을 존중했고, 백지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지각과 개념이 서로 합쳐서 비로소 인식이 성립한다고 한다. 한학과 송학의 주장도 마찬가지로이다. 송학은 심(心)을 위미정일(危微精一)운집필중(允集厥中)으로 여기므로 사람이 힘써 닦는 것을 중시하나, 한학은 그렇게 여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명물(名物)에 대한 훈고 속에서 찾으려 한다.” (117쪽)

(4) 심성의 발전은 형이상학적 진리를 계시해 주기 때문에 신송학(新宋學)을 제창해야 한다. (120쪽)

4. 진독수·호적 및 풍우란

진독수와 호적은 각각 『과학과 인생관』 서문』을 썼는데, 그것은 실제상으로 이 과학논쟁에 대한 신문화운동의 총결이었다.

호적은 논쟁에 직접 참가하기도 했지만,⁴⁰⁾ 정문강이 글을 발표하기 전에 항상 주요 논점에 대해 검토하고 조언해 주었다. 호적은 늘 “서양의 오늘날의 큰 병환은 욕망의 발전에 있지 않고 이지의 진보가 물질문명의 진보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 있다”고 여겼다. 그는 서양문화가 완벽히 좋은 것은 아니나, 다만 “우리는 오늘 형세가 서양인과 함께 그 길을 향해 달려가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⁴¹⁾ 호적은 「서문」에서 말했다.

서구의 과학은 이미 튼튼한 기반 위에 뿌리내리고 있으므로, ... 결코 현학 귀신들의 공격에 의해 동요되지 않는다. ... 하물며 지금의 중국은 과학의 축복을 누려 본 적이 없으니, 더욱이 과학에 부수적인 ‘재난’을 거론할 시기가 아니다.

우리 모두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자: 온 세상에 가득찬 점집·사당·도원, 온 세상에 가득찬 도사들의 귀신 사진들, 이렇게 발달되지 못한 교통, 이처럼 발달치 못한 산업, 우리가 대체 과학을 배척할 자격이 있거나 하는가?

또 ‘인생관’의 경우 우리는 다만 관리가 되어 부자되는 인생관, 운명에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관, 단지 귀신에게 점을 치는 인생관, 『안사전서(安士全書)』의 인생관, 『태상감응편(太上感應篇)』의 인생관이 있을 뿐이다. 즉 중국인의 인생관은 아직 과학과 상견례도 행하지 못한 셈이다.

오늘날 우리의 걱정은, 바로 과학을 충분히 제창하지 못하고, 과학의 교육이 활발하지 못하고, 과학의 세력이 아직 저 전국을 뒤덮고 있는 난장판을 쓸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렇듯 걱정해도 부족할 판에) 아닌 밤중의 홍두깨처럼,

40) 그는 장군매의 「인생관」을 보고 병상에서 「손오공과 장군매」라는 글을 써서, 그 어떤 현학적 주장이라도 끝내 논리학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음을 설명했다.

41) 『호적의 일기』, 1923년 12월. (나지전, 179쪽)

유명 인사들이 '서양 과학의 파산'의 함성을 제창하고 나섰으니, 서양 문화 파산의 죄명을 과학에 지우고 과학을 무시하고 과학과의 인생관의 죄상을 나열하여 과학이 인생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게 될 줄이야, 꿈에라도 상상했겠는가?

즉 중국의 전통적 낡은 인생관은 여태 과학과 대면하여 비판적 음미를 전혀 거치지 못했거늘, 도대체 인생관을 핑계로 과학을 배격하는 것이 말이나 되겠냐는 것이다.

호적은, 이 논쟁에서 과학과의 “절대적 약점”은 단지 추상적으로 과학이 인생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논변했을 뿐 구체적으로 하나의 과학적 인생관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지적하면서, “과학을 인생관의 기초로 삼는” “자연주의적 인생관”을 제시했다.

우리는 이 두 손을 충분히 훈련하고, 이 두뇌를 충분히 운용하고 능력을 증가시키고 지혜를 향상시키고 공구를 제작하여, 물품이 더욱 구비되고 사람의 능력이 더욱 증대된 연후에 ‘인공(人工)으로써 천행(天行)을 보충하여 정신상의 일체의 이상적 도덕이 그에 근거하여 도달되지 못할 것이 없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길을 따라 노력해 나가서 ‘어느 경우든 어느 때든 노력하고 개량하여야’ ‘인생관(人生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되는 것은 모두 ‘인사관(人死觀)’일 뿐이다. ‘열반’ ‘적멸’ ‘출세간’은 모두 인사관이니 논할 필요도 없다. 또 무슨 ‘지중(持中)’, ‘조화(調和)’, ‘순천리이대진(順天理而待盡)’, ‘물래이순응(物來而順應)’ 등도 단지 나태한 사람의 반생반사관(半生半死觀)일 뿐이다. 이들은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살아도 활발하게 살지 못하고 그저 붙어 있는 숨을 쉬고 있을 뿐이다. 세상의 한 무리 몽매한 이들(현학파)이 이러한 반생반사의 삶을 ‘정신생활’이라며 자부하고 찬탄하고 있는 것이다.⁴²⁾

한편 진독수는 “무슨 선천 형식, 무슨 양심, 무슨 직각, 무슨 자유의지 등등 그 무엇이든 모두 생활 상황이 상이한 각 시대 각 민족의 사회적 암시에 의해 주입되는 것이다”는 논점 하에, 장군매가 제시한 “인과율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인생관의 사례” 9가지를 하나하나 전부 논파했다.⁴³⁾ 원래 진독수는 “인

42) 『호적학술문집-중국철학사』 하권, 1182-3쪽. 유장림, 435-6쪽에서 재인용.

43) 예를 들면, 장군매가 「인생관」에서 “(7)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 위아주의가 있고 이타주의가 있다. (8) 세계에 대한 우리의 희망에 낙관주의가 있고 비판주의가 있다”

간사와 물질을 일일이 분석하여 확고부동한 사실을 도출한 것만이 과학으로 인정하고 철학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인간사와 사물에 대한 분석을 떠나 공리공론만 하는 ‘형이상학적 철학’(즉 현학)은 …과거의 미몽(迷夢)에 불과하니 우리는 각성해야 한다”⁴⁴⁾고 하여 과학적 사고방식을 역설했다.

진독수는 「서문」에서, 정문강이 마치 장군매와 싸워 이긴 것처럼 여겼으나, 논거나 논점이 핵심을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현학과를 확실히 논파할 수 있는 “무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단지 객관적인 물질적 원인이 사회를 변동할 수 있고, 역사를 해석할 수 있고, 인생관을 지배할 수 있음을 믿는데, 그것이 곧 ‘유물론적 역사관’이다.

진독수의 의견은, 다시 무슨 “자연주의적 인생관”을 논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일종의 정확한 인생관이 있으니 그것이 곧 마르크스주의의 “유물론적 역사관”이라는 것이다.⁴⁵⁾

이에 대해 호적은 다른 의견을 제출했다. 그는 말하기를 “진독수가 말한 것은 일종의 ‘역사관’이고 우리가 토론하는 것은 ‘인생관’이다. 인생관은 우주만

는 등의 9가지 항목을 열거하며 그것들이 인생관이고 그것은 ‘주관적, 직각적, 종합적, 자유의지적이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진독수는 각각 “(7) 사람의 본성 중에는 위아(爲我)와 이타(利他)의 두 본능이 있으며, 그런 본능은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했고 어떤 역사적 사회적 암시를 받았느냐의 차이에 따라 상이하게 발휘된다. (8) 비판 낙관의 견해의 차이는 개인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고 어떤 역사적 사회적 암시를 받았느냐의 따라 달라진다. 한번 각국의 자살율의 통계를 보라. 자살 원인은 모두 환경 때문에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연령, 성별, 직업, 계절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진독수의 논점은, 요컨대 <인간의 모든 생각(이른바 인생관)은 자유의지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 아니라, 이미 환경과 여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른바 ‘결정론’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진독수의 「서문」과 관련하여, 유장림은 “장군매의 논리는 명석하지 못하였고 전후 모순되기까지 하였으니, 자연히 진독수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고 평했다.(유장림, 445쪽)

44) 『독수문존(獨秀文存)』(『민국총서』 제1편 92권), 820쪽.

45) “과학과 인생관 논쟁은 대체로 세 파로 나누어진다. 즉 장군매·양계초가 대표인 현학과, 정문강·호적이 대표인 과학파, 진독수·구추백이 대표인 유물사관파가 그것이다.”(許全興 등 저, 『中國現代哲學史』<북경대학출판사, 1992>, 185쪽)

물과 인류에 대한 한 개인의 견해이고, 역사관은 ‘역사를 해석하는’ 일종의 견해이고, 역사에 대한 한 개인의 견해이다. 역사관은 단지 인생관의 일부분일 뿐이다”라고 하며, 진독수의 유물적 역사관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독수는 유물론적 역사관은 역사에 한정되지 않고 인생관 사회관에 응용되는 근본 사상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호적이 아직 유물사관 이론을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많은 오해를 낳고 있는 것 같으므로, 대충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유물사관에서 말하는 객관적 물질원인은 인류사회에서 경제(즉 생산방법)를 골간으로 삼는다. … 유물사관 철학자도 결코 사상·문화·종교·도덕·교육 등 심리현상의 존재를 중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다만 그것들이 모두 경제적 기초 위에 세워진 건축물이지 ‘기초 자체’가 아님을 인정한다. 이는 유물사관의 철학자가 주장하는 것은, 경제가 제도·종교·사상·정치·도덕·문화·교육을 통솔하는 일원론이지, (병렬된) 경제·종교·사상·정치·도덕·문화·교육의 다원론이 아니기 때문이다. (30쪽)

유물사관에 대한 진독수의 이 설명에서 우리는 그가 마르크스주의 유물사관에 대해 정통했음(融會貫通)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이해와 태도에 있어서 신문화운동의 우익과 좌익이 갈라졌다.⁴⁶⁾

또 풍우란은 1990년, 『중국철학사 신편』 제7권 “과현논쟁”을 다룬 부분에서, 장군매와 정문강이 제시한 논점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⁴⁷⁾

46) 풍우란, 『중국철학사신편』 제7권, 『삼송당전집』 10권, 577쪽.

47) 풍우란은 장군매가 열거한 “과학과 인생관의 차이 5가지”에 대해 하나하나 검토했는데, 예컨대 다음과 같다. “장군매는 첫째 ‘과학은 객관적인 것이고 인생관은 주관적인 것이다’고 여겼다. 그러나 사실 인생관이나 과학을 막론하고 그것이 대상이라는 점을 말하면 모두 객관적이다. 인생관은 결코 인생이 아니다. … 사람들이 모두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아들 딸 낳고 기르는 것 —이것이 객관적 인생이다. 사람들은 객관적 인생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곧 서로 다른 인생관으로 형성된다. 인생관은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그 대상은 필경 객관적이다. … 장군매는 둘째, ‘과학은 논리적 방법의 지배를 받지만 인생관은 직관에 근거한다’고 여겼다. 그러나 사실 과학이나 인생관을 막론하고 모두 논리적 방법의 지배를 받으며, 어떤 모양의 직각이든 일단 사유·언론이 되면 그것은 모두 ‘논리적 방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되된다.’ 인생관은 이미 ‘관’이고, 과학이 이

그런데 풍우란이 1930년 『중국철학사』에서 논한 “철학의 방법”은 바로 이 “과현논쟁”의 혼수를 받아 정리한 것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철학의 연구 방법은 과학의 연구 방법과 다르다고들 말한다. 과학의 방법은 논리적이고 이지적이나, 철학의 방법은 직각적이고 반이지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직각’, ‘돈오’, ‘신비경험’ 등이 설명 매우 높은 가치가 있다손치더라도, 반드시 철학의 방법 내로 혼입할 필요는 없다. 과학이든 철학이든 모두 서술하거나 언표한 이치이므로, 반드시 엄격한 이지적인 태도로써 표출해야 한다. 문장으로 주장을 내세운 사람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따라서 불교의 최고 경지가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깨달음에 있다 할지라도, 다만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철학이 아니니, 엄격한 이지적인 태도로써 설명한 이론이라야 비로소 소위 불교철학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각의 방법을 통해 일종의 신비적 경험을 얻을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있어도(이 경험이 과연 “실재”와 부합하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 직각의 방법을 통해 어떤 철학을 얻을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직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경험에 이르게는 하지만, 어떤 이론을 수립케 할 수는 없다. 하나의 경험 그 자체는 소위 진위가 없으나, 하나의 이론은 하나의 판단인즉 판단이란 반드시 논리에 맞아야 한다. 각종 학설의 목적은 경험을 서술하는데 있지 않고 이론을 수립하는 데 있으므로, 그 방법은 반드시 논리적이며 과학적이어야 한다. 근래에 이런 까닭을 이해하지 못하고 과학적 방법에 대한 일대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사실 과학적 방법은 실제 우리가 통상 사고하는 방법 가운데 비교적 진지하고 비교적 정확한 것일 뿐, 어떤 기묘한 점은 없다. 오직 그러한지라 논리와 과학적 방법을 반대하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논변은 여전히 논리와 과학적 방법에 의지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직각’ 등의 가치를 인정하긴 하나, 그것을 철학의 방법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과학적 방법이 바로 철학의 방법이며, 우리가 통상 사고하는 방법과 다만 정도상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종류상의 차이는 없다.⁴⁸⁾

여기서 말하는 “과학적 방법에 대한 일대 논쟁”이 바로 과현논쟁을 지칭한다.

미 ‘학’인 이상 그것들은 모두 사유·언론이다. 이미 사유나 언론이 된 이상 그것은 반드시 ‘논리적 방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또 정문강이 “과학의 특성”을 “존의적유심론(存疑的惟心論)”으로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현학의 방법과 대비되는 과학의 방법을 설명하는 데는 실패한 것이었다고 하면서, “과학이 정문강이 말한 것과 같은 ‘존의적유심론’이라면, 그것은 현학과 ‘최대의 적’이 아니라 ‘최대의 동지’가 된다”라고 지적했다.(『삼송당전집』 제10권, 574쪽)

48) 풍우란, 박성규 역, 『중국철학사』상권(까치, 1999), 5-6쪽.

“논리는 과학에만 해당되고 인생관은 직각적이다”는 현학과 장군매의 입장을 논박한 과학파의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풍우란의 이런 명쾌한 설명은 아마 과현논쟁을 통한 축적된 소산 때문에 가능했다고 여겨진다.

5. 맺는 말

먼저 이 논쟁에 참가한 사람들의 동기를 살펴보자. 현학과 장군매는 “한 사회에 대해 일종의 사상을 제시하는 것은 청년과 학술계에 중대한 영향이 된다. 다시 말해 일종의 사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중대한 책임이다”고 하면서, “우리 사상계가 하나의 대 목표를 가지고 모두들 앞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는 것, 즉 우리의 사상사 위에 하나의 신국면을 열 수 있기를 희망했다”고 회고했다.⁴⁹⁾ 또 현학과 양계초는 “이 번의 논쟁에서 나는 원래 우리 학계에 하나의 신기원을 열어 청년 학생들로 하여금 이 문제에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얻게 하려고 한다”(121쪽)고 말했다.

한편 과학파인 정문강 역시 “장군매가 현학을 제창하여 과학과 대적하므로 청년 학생을 오도할까 심히 두려워 부득이 이 글을 썼다”(146쪽)고 밝혔다. 즉 현학파가 자기들의 본체론을 연마한다면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겠으나 “많은 청년들이 그들의 속임수에 빠져” 오도되고 있으므로 부득불 논쟁에 참여했다는 것이다.⁵⁰⁾ 만약 장군매처럼, “세상에 시비가 없다면, 특히 신문 화운동가들이 힘써 추동한 그 측면에도 시비가 없다면”, “중국의 개량 역시 명확한 방향이 없어져서 청년들이 그 영향을 받는다면 중국을 개량할 희망은 요원해지고 만다”고 정문강은 우려했던 것이다.⁵⁰⁾

이와 같이 논쟁자 쌍방 모두 청년학생을 염두에 두었다. 즉 대사회적인 맥락에서 “과현논쟁”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호적에 따르면 “신문화운동의 근본 의의는 중국 옛 문화는 현대 환경에 부

49) 장군매, 『人生觀論戰之回顧』, 1934. 나지전, 16쪽 참조.

50) 1950년대 호적의 회고. 호적의 『정문강전(丁文江傳)』(海南出版社, 1993) 참조.

적합함을 인정하고 세계의 신문화를 충분히 접수할 것을 제창하는 것이었다.” 당시 받아들이려는 신문화는 서양에서 들어온 과학과 민주가 그 대표였다. 그런데 양계초 등이 1차 세계대전 후 “과학”을 회의한 것은 사실상 5·4 운동의 가장 기본적 관념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이다. (나지전, 168쪽)

현학파는 중국 정신문명이 현대인의 마음을 구제할 수 있고 안신입명의 인생관을 제공할 수 있다고 여겼다. 이에 대해 과학파 정문강은 송명리학 따위의 정신문명은 능력도 상식도 없는 나태한 사람만 낳고, 그런 사람은 강적의 침입을 막아낼 길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과학의 선양만이 살길임을 주장하여 “의식이 족해야 예절을 알고 창고가 가득해야 영욕을 안다”는 평범한 진리를 상기시켰다. 반면 현학과 장군매는 현재 인욕이 횡행하여 사람들이 예절과 영욕을 몰라 세상이 깊은 곤경에 빠지게 되었으니, “예절을 알아야 의식이 족해지고 영욕을 알아야 창고가 가득 찬다”라고 뒤집어 말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송학을 부흥시킬 때라고 선언했다.

이 논쟁에서 언급된 문제는 과학의 사회적 효과,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자유의지와 결정론, 과학과 가치, 과학과 철학, 전통과 현대 등등 아주 많은 것들이었다. 이 논쟁에 대한 몇몇 평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논쟁은 과학파가 지식 청년들의 광범한 지지를 받으면서 끝이 났다. 과학적 이성적 인생관은 당시 중국 사회변혁의 요청에 더 부합되었고 미래를 바라보고 진보를 추구하려는 요구에도 더 부합되었다. 심신과 사회 국가 역사에 확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결정론·인과율이 있음을 인정하고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예상하는 데에도 쓸모가 있는 과학주의적 정신·태도·방법이 당시 중국 젊은이들의 선택에 잘 부응했던 것이다. 그들은 자기에서 돌아가 찾으려고 수심양성(修心養性)의 송학에 돌아가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아무런 자신도 제한도 없이 자유의지, 직각, 종합만을 공허하게 외칠 수도 없었다. 개인의 운명과 사회의 앞날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위기의 시대에는 따를 수 있는 법칙과 찾을 수 있는 인과율을 가짐으로써 구체적으로 행동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우주·역사·인생관을 믿는 것으로 사람들이 기울어진다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18, 19세기 서구 근대의 과학과 그 정신 및 방법은 낙후된 중국에게는 신선하고 선진적인 것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출출듯이 기뻐하면서 받아들이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 (이택후, 77-78쪽)

과현논전(科玄論戰)은 결국 중국현대철학사에 있어서 과학주의와 인문주의 사조의 진영을 구분했다. 또 이전의 논쟁들과 달리 이 논쟁의 쌍방은 직접 순수 철학적 각도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과학(이지)과 현학(직각)의 두 가지 방법의 대립 구조를 명확히 부각시켰다. 현학파의 주장(主將) 장군매는 자유의지로써 과학파의 결정론에 대항했다. ... 논전의 핵심은 “과학이 인생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전개된 것이지만, 중국철학 발전의 영향 측면에서 보면 그 논전은, 중국 현대철학의 발전이 더욱더 전통을 계승하여 도덕적·인본적·형이상학적 노선으로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철저히 개혁하여(改弦更張) 다른 하나의 노선, 즉 과학적·이지적·실증적·경험적 노선을 개척해야 하느냐에 관련된 것이었다. ...

과학주의 철학자는 철학 방법의 변혁에 힘을 쏟았고, 인문주의(현학파) 철학자는 형상(形上) 의미의 추구와 도덕 형이상학의 재건에 착안하였다. (정가동)⁵¹⁾

끝으로 이 논쟁이 중국의 현대신유학 형성에 끼친 영향에 대해, 중국학자들은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대강을 살펴보자.

총체적으로 말하건대 5·4 시기에 사람들은 비교적 중·서철학, 과학과 현학, 이지과 직각 사이의 차이나 대립을 강조했지만, 30·40년대 사람들은 그것들 사이의 회통과 융합에 더욱 주목하였다. 옹십력(熊十力), 풍우란, 김악림(金岳霖)의 철학은 모두 3·40년대에 성숙했다. ... 이들 철학 체계의 형성은 저 과학파와 현학파가 제시하고 토론했던 문제와 관계가 없지 않다. 다만 이들은 서로 다른 각도와 측면에서 과학파와 현학파의 입장을 초월했고, 서로 다른 정도로 중·서(과학과 현학, 이지와 직각) 융합의 경향을 드러냈다.

옹십력의 철학은 물론 도덕적·인본적·형이상학적 노선을 걸었지만, 그의 사상은 조기의 양수명·장군매가 주장한 직각주의나 의지주의로 귀결될 수 없다. 또 김악림의 『지식론(知識論)』은 과학주의 사조 발전의 최고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만 그는 결코 “元學(현학, 형이상학)” 문제를 거부하지 않았고, 원학과 지식론(인식론)은 서로 다른 연구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서를 융합하고 근대 이래 과학주의와 인문주의 사조의 발전성과를 융합한 측면에 있어서, 최대의 노력 끝에 최대의 공헌을 한 것이 풍우란의 철학이다. 풍우란 신리학(新理學) 체계의 성격은 한 마디로 서양 현대철학의 논리분석 방법을 흡수하여 유가적 형이상학을 재건한 것이었다. 이 작업은 마치 5·4시기 과학파와 현학파의 주장을 융합한 것과 같다. (정가동, 173-4쪽)

51) 鄭家棟, 『當代新儒學史論』(廣西教育出版社, 1997), 172, 179쪽.

풍우란의 철학은 중국 근대 이래의 과학주의와 인문주의 사조의 노력을 융합하는 것으로 체현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과학파가 주장했던 바에 따라 전통적 철학방법과 사유방식의 노선을 개조했으며, 나아가 현학파(인문주의자, 新儒家)가 제시한 문제, 즉 서양 현대 철학의 방법을 흡수하여 전통적 형이상학을 재건하는 문제에 회답했던 것이다.(『중국 유학문화 개관』⁵²⁾)

과현논쟁에서 과학파든 현학파든 과학과 인생관의 특성 등을 처음부터 꼭 정확히 이해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논쟁은 근대 중국의 지식인들이 그저 서양의 이질 문화를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능동적인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문제를 찾고 그 해결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새로운 문화 접촉 시기에 자신들의 앞길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지식인들의 뜨거운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논쟁은, 많은 서양철학 용어와 사상이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의 서양철학 이해와 소개”가 아닌, “중국인의 중국철학” 혹은 “중국인의 철학적 모색”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⁵³⁾

52) 『中國儒學文化大觀』(湯一介 등 주편, 北京大學出版社, 2001), 278쪽.

53) 바로 이 점에서 여전히 “서양철학에 대한 이해와 소개”의 차원이 위주인 우리의 철학 풍토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다.

《中文抄錄》

科學與人生觀之論戰

許南進 / 朴星奎

在中國現代思想史上，發生在1923年的科學與人生觀(玄學)大論戰，很重要。它對中國思想界影響很深遠。它是關於科學與人生觀關係問題的大討論，是傳統的價值系統和人生哲學體系動搖甚至潰決的情況下，中國現代思想界希望按照現代科學的價值觀，從理論基礎上重新建築現代人生哲學與價值體系的深入和系統的辯論。我們可以說這論辯(論戰)以後中國思想界進入新局面。

此論戰開始於張君勱之「人生觀」講演。這講演發表在學術誌以後，丁文江即刻反駁他。此後梁啟超，胡適，任叔永，孫伏園，章演存，朱經農，林宰平，唐鉞，張東孫，菊農，陸志韋，王星拱，頌臯，王平陵，吳稚暉，范壽康等參加這論戰。

此論文考察在科學主義和玄學主義衝突歷程中討論的問題。張君勱的論點被影響於梁啟超的「歐游心影錄」。他主張科學破產，宣揚新宋學。丁文江湖適等主張研究科學的必要性，反對宋學的舊文化心態。

本篇並考察梁漱溟·陳獨秀·胡適·馮友蘭對科學與人生觀關係的不同觀點與解說，而李澤厚·鄭家棟的評價此論戰。

此論戰反映出近代中國知識人之主體的認識態度對於西方新文明。因此雖然參加此論戰者很多底言及引用西方哲學思想，可以說此論戰的內容是“中國人的中國哲學”或“中國人的哲學摸索。”